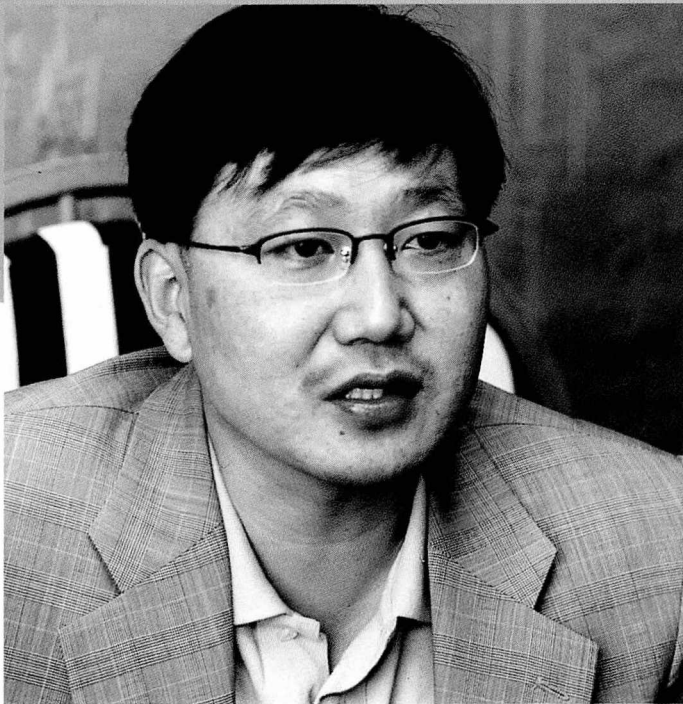


역사의 어둠에 묻힌 사찰 현판의 비밀

〈한국의 사찰 현판 1〉 펴낸 신대현씨



본존불을 모시는 금당은 거의 모든 사찰의 중심건물이다. 이런 건물들의 처마 밑에는 '대웅보전' '대웅전' 이라는 현판(懸板)이 걸린다. 흔히 편액(扁額)이라고도 불리는 현판은 말 그대로 널빤지나 종이 혹은 비단 등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문 위에 거는 액자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판들도 대부분 '부석사' '안양루' 처럼 사찰 이름이나 건물 이름을 가로로 적어 건물 앞쪽 처마에 걸어놓은 글씨다. 하지만 이 정도만 알고 있다면 현판을 절반쯤 아는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머지 절반의 현판들은 전각 안쪽, 사람들의 눈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중수기 현판의 사료적 가치 밝힌 최초의 연구서

한국사찰문화원 연구위원인 신대현씨(41)가 펴낸 《한국의 사찰 현판 1》(혜안)은 당대 명필들이 쓴 현판들의 후광에 가려 그늘진 곳에서 사찰을 지켜온 '또다른 현판' 들을 조명한다. 이 책에는 교구본사로서 우리나라 대표 사찰로 손꼽히는 속초 신흥사, 김제 금산사, 순천 선암사, 경주 불국사를 비롯해 영천 백흥암, 인천 보문사, 부안 내소사 등 전국 44개 사찰에 전하는 현판들을 소개했는데, 신씨는 이 현판들을 특별히 '중수기 현판' 이라 부른다.

"중수기 현판은 단순히 전각의 이름만 적은 편액과 달리 대체로 긴 문장으로 써어 있습니다. 주로 사찰의 중수·중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죠. 편액이 주로 그것을 쓴 인물이나 서체를 완상하는 대상인 반면,

이 책은 당대 명필들이 쓴 편액의 후광에 가려 그늘진 곳에서 사찰을 지켜온 중수기 현판을 조명한다. 이 현판들은 대개 한낱 나무쫓가리, 장식 정도로만 여겨져 휴대받기 일쑤지만, 그 속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 절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다. 또한 현판은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사료의 공백을 메우고, 기존의 속설을 과감히 뒤집어 역사를 바로잡기도 한다. 지은이는 역사의 어둠에 묻혀 있는 사찰 현판을 금석문 연구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수기 현판은 그 절이 지나온 역사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찰이 사찰의 역사를 따로 기록한 책이 없기 때문에 중수기 현판은 한 사찰의 '족보' 와 같다는 게 신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판은 한낱 나무쫓가리, 장식 정도로만 여겨져 휴대받기 일쑤였다. 현판은 때로 허름한 창고 장작더미에서 세월을 잊고 깊은 잠을 자기도 하고, 글씨가 지워진 채 거미와 곰팡이들의 서식처가 되기도 했다. 심지어 경주 불국사 <토함산석굴중수상동문>은 석굴암에 관한 유일한 현판인데도, 1920년 이후 한동안 화장실 문짝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것도 문짝 크기를 맞추느라 맨 앞부분과 끝이 잘려나간 채 말이다.

신씨는 이런 무관심이 늘 안타까웠다. 그러다가 1998년 월간 《여성불교》에서 일반인들도 사찰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고, 이것이 계기가 돼 오랫동안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사찰 현판은 그의 손에 이끌려나와 세상 빛을 쬐게 됐다. 그리고 이 책은 국내 최초의 현판연구서가 됐다. 그는 앞으로 두권 정도를 더 보태 현판연구를 마무리지를 예정이다.

"중수기 현판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까닭은 사찰 역사를 역사서나 사적기의 기록에서만 찾으려 했던 연구자들의 안이한 태도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현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죠. 비석의 경우 어느 정도 목록화가 이뤄졌지만, 현판은 목록은커녕 현판문 자체에 대한 소개조차 없었습니다."

사찰 주변을 맴돌며 '속세의 법문' 을 엿듣다

신씨가 사찰 현판에 관심을 쏟게 된 건 대학원 시절, 스승 황수영 교수를 만나면서부터다. 금석문 연구에서 일가를 이룬 황교수가 학생들에게 입버릇처럼 문헌자료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던 것. 그때부터 그는 틈만 나면 비석을 찾아다니고 비문을 탁본해 내용을 읽어보곤 했다. 이렇듯 뚜벅뚜벅 걸어온 '나홀로' 연구에 든든한 편자를 달아준 건 사찰문화연구원이다.

“1995년부터 사찰문화연구원에 연구위원으로 봉직하면서 비로소 사찰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매년 70~80여 전통사찰을 직접 찾아다니며 창건과 연혁, 인물, 문화재 등을 조사할 수 있는 행운을 누렸죠.”

그동안 그의 발길이 닿은 전통사찰은 대략 870여 곳. 우리나라 전통 사찰들은 그 규모를 막론하고 거의 모두 그의 발도장이 찍힌 셈이다. 이런 바지런한 연구의 결과물이 현재 사찰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전통사찰총서>인데, 3권부터 17권까지 모두 15권이 그의 손을 거쳐 출간됐다. 그리고 이 책 역시 그런 순력(巡歷)을 통해 얻어졌다.

현장답사를 많이 다니는 그는 일주일 가운데 3~4일을 지방에서 보낸다. 올해는 <전통사찰총서> 가운데 경상남도과 제주도편을 준비하고 있다. 더욱이 3년 전부터 성보문화재단연구원으로부터 성보실태조사도 의뢰받아 이래저래 출장이 잦았는데, 전국 각지에 흩어진 사찰들을 순례하다 보니 재미있는 일화도 많다.

“성보실태조사는 도난당하거나 훼손되는 불교문화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목록을 작성하는 일이지요. 하지만 답사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환대받는 건 아닙니다. 미리 공문을 띄우고, 전화를 걸고 가도 정작 스님들의 반응은 싸늘할 때가 많아요. 저야 서운할 때도 많지만, 워낙 문화재 도난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그분들 입장도 이해 못할 건 아니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도 미리 답사할 사찰에 공문을 띄워 어느 날 몇 시경에 방문하겠노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답사 당일 신도의 안내를 받아 주지스님과 합석했다. 그런데 분위기가 뻣뻣한 게 영 기분이 좋지 않았다. 선방에는 주지스님 말고도 신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럿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시종일관 수상쩍은 눈초리로 신씨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함을 건네고 통성명을 마쳤는데, 난데없이 신도 한명이 신씨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그런 일쯤은 이제 통과의례가 돼 순순히 내줬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받아든 신도가 갑자기 옆방으로 가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게 아닌가. 나중에 그 사람은 신도를 가장한 형사로 밝혀졌다. 도난을 우려한 사찰측에서 경찰서에 의뢰해 그의 신분을 확인해달라고 했던 것이다.

어떤 날은 이제 팔순이 된 노스님의 출가기를 듣느라 밤 10시까지 산중에 발이 묶여 있기도 했다. 그때 들은 이야기는 영화나 소설 못지 않게 흥미롭다. 그 노스님은 한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과 ‘큰형님’이었다. 물론 말

잘 듣는 ‘동생’들도 여럿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큰형님은 라디오 밑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날로 동생들을 시켜 수소문해 결국 그 스님을 찾아가 머리를 깎았다. 절에 가면 으레 주지스님한테 법문을 듣기도 하지만 정작 신씨는 이렇듯 속세를 등진 사람들의 속내를 듣는 게 재미있다고 털어놓는다.

훼손되고 방치된 현판들은 귀중한 역사자료

현판은 불사가 일어난 배경, 시주자 명단, 중수기 작성자의 이름과 시대 등 당시 역사를 가장 사실적으로 기록한다. 때문에 현판은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사료의 공백을 메우고, 때론 기존의 속설을 과감히 뒤집어 역사를 바로잡기도 한다. 예컨대 영천 백홍암 <백홍암극락전단확공덕기>를 보면, ‘단확(丹靑)’이란 말이 단청(丹青)뿐만 아니라 건물과 내부 상설의 중수 내지 중건을 뜻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현판에서 드러난 ‘구품회(九品會)’와 ‘선장(禪匠)’이란 명칭은 범회와 사찰계의 성격과 당시 불사를 주관하던 사람을 선장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인천 용궁사 <영종백운산구담사시주질>은 일반인들뿐 아니라 역사가들조차 ‘과락호’라 알고 있는 홍선대원군 이하응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이 현판에 따르면, 이하응이 1854년 용궁사 편액을 쓰고 중창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 안동 김씨 세력을 피해 걸인이나 다름없이 생활했던 당시 이하응의 처지를 생각하면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엿보인다. 또한 여천 홍국사 <남장군순절비>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함께 해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올렸던 남 유 장군의 일대기가 기록됐다. 이 현판은 해전의 승리담뿐 아니라, 어떤 역사서도 기록하지 않았던 남 유 장군의 행적을 자세히 알려준다.

“사찰 현판은 그동안 역사가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훼손되고 방치된 현판들이 곳곳에 널려 있죠. 이를 귀중한 역사자료로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판이 금석문 연구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 박옥순 기자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함에 이끌려

사찰 현판을 신들린 듯 찾다 보니 때론 축복처럼 대단한 미문(美文)을 만나기도 했다고 그는 말한다. <강화군보문사중종공덕판기>가 바로 그것. 이 현판문을 쓴 사람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문장가이자 대표적인 유학자인 이건창이다.

“이 현판은 1896년, 당시 고군산도에 유배됐다가 풀려나 고향 강화도로 돌아온 이건창이 썼습니다. 어찌 보면 의아스러운 일이지요. 송유역불을 기치로 내건 조선에서, 그것도 내로라하는 유학자가 불사에 참여했으니깐요. 하지만 불교가 모든 종교를 아우르듯 조선의 유학자들 역시 사찰을 마음의 귀의처로 삼았던 경우가 많았으니 그리 이상스러운 일만도 아닙니다.”

이 책에는 다른 현판들과 마찬가지로 이 현판문의 해제와 원문이 실렸다. 하지만 유배에서 돌아온 직후의 어두운 심정을 진솔하게 털어놓은 이건창의 그 화려한 문장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한 것 같으며 그는 못내 아쉬운 마음을 전한다. 그는 또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함이 나를 사찰 현판에 빠져들게 했다’고 귀띔한다.



해안/A5신/400면/12,000원